

### 3. 구주를 약속하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다 사망이 되었을 때 창조주께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조처를 취해주신 사실, 곧 구주를 약속하신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4:4-6]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때가 찬 사실을 말하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중에 여자에게서 나게 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자에게서 탄생하신 구주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들으신 분은 복습하시고 새로 들으시는 분은 공부하시고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가장 소중하게 창조한 당신의 창조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을 버리고 사망이 된 사람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이 계획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때 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능력이 숨어 있는데, 아무 때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나타낼 일이 생길 때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일이 생기도록 정해놓고 그 일이 발생하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 이미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이미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롬16:25~27]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인데 나타낼 일이 없을 때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딤텔1:2,3]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이 영생을 잃어버리

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자기 때에 나타냈다고 한 것입니다.

[딤후1:9,10]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도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되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선포되었다는 뜻이지요.

[벧전1:20]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존재하고 영생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예수를 통하여 하신다고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예정론에 적용시킵니다. 즉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멸망 받을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한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엡1:4~6]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멸망 받도록 예정되었다고 해석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도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전 예정설이라고 하지요. 성경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념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런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당신 안에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90:1,2]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

[골1:16,17]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들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서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존재를 상실합니다. 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결국 존재

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하고 영존한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 예정하신 사실입니다. 바로 이 처소가 모든 피조물이 있어야 할 처소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이 처소를 떠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유6) 그러니까 그는 없어지게 되지요.(히 2:14) 루시퍼뿐만 아닙니다. 루시퍼에게 속아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것들은 예외 없이 다 없어집니다.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영원전이나 태초에도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15:5,6)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후에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돌이키라고 권고했을 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고 갈 데까지 가기로 한 것이지요.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없어질 때까지 크게 분내어서 자기 왕국을 삼켰다고 작정한 이 지구에서 사람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계 12:12)

그러므로 사단이 된 루시퍼는 사람을 유혹할 때 사람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내모는 방법은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루시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접근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11:3) 이 말씀은 뱀이 유혹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지요. 하와를 미혹한 것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하는 것은 썩어서 마침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루시퍼는 권고하는 날을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루시퍼에게 속아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아담과 그의 아내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약속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위가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기로 의논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슥6:13) 그리스도께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실 것인데,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속죄를 이루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두른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

서는 이 사실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5절입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구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한다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구주를 아는 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구주가 탄생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주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구주는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구주의 탄생에 대한 말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을 구주의 고난을 뜻하는 말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구주의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봉독한 갈4:4은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창3:15을 인용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낳아주는 것은 남자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주는 여자의 씨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뱀은 사단이요 마귀이지요. 즉 마귀를 죽게 할 구주는 남자의 씨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씨로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구주의 약속으로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중심 되는 말씀입니다. 후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라”인데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에게는 원래 생명의 씨를 주지 않았습니니다. 생명의 씨는 아담에게 붙여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것으로 아담으로부터 여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이제 구주는 아담의 씨로 오지 않고 여자의 씨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미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아담에게 준 생명의 씨는 사망의 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생명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는 썩어질 씨 외에는 생명의 씨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망이 됐기 때문에 아담, 곧 남자에게서는 썩어질 씨 외에 생명의 씨가 나올 수 없게 되었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썩어질 씨, 곧 사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인다는 말을 무섭게 여깁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는 말이 우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이면 죽기 때문에 죽인다는 말이 가장 무서운 공갈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런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구주가 되어 세상에 오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시되 남자의 씨로 오시지 않습니다. 남자의 씨로 오는 사람은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전 15:22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구주는 아담의 씨로 오시면 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생명의 씨가 되어 남자를 경험한 일이 결코 없는 처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3:15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하셨는데, 그 여자가 순결한 처녀라는 것은 훗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사7:14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의 구주는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구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며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줄 자격도 없고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들 자신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자에게 생명의 씨가 되어 탄생하실 분은 원래 생명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1:4에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지요. 구주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는 또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십니다. 첫째 아담은 태초에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인류의 시조 아담이고, 그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죽음을 조금 유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큼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50년을 산 사람들은 사실 50년을 죽은 것이지요. 죽어가는 것이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이제 구주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고전15:45) 첫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아담의 자격으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고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사망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롬5:14) 오실 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뿐이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고전15:45) 그분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망의 존재가 되었으며 그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사망의 존재가 되었으나 아담의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창조주 자신의 생명을 생명의 씨로 하여 처녀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생명 자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도 예수 안에서만 영생하게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그는 생명과 존재를 상실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말씀대로 그를 죽게 버려두시고 다른 아담을 새로 창조하시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아담을 회복, 복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만일 이 아담을 죽게 버려두시면 아담 창조는 실패가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바로 그런 것을 노렸지요. 루시퍼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과 회복의 도리를 전혀 몰랐으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대속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 생명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서 사람 중에 사시면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겠다고 발표되었을 때, 즉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단이 된 루시퍼에

게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루시퍼는 한 편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며 한 편으로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유심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주는 때가 차매 여자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결코 구주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망이 되었을 때 창조주께서 친히 구주가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생명으로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